



내무성 보안국 국장 김동수 소장.

김동수 선생은 1910년 2월 27일에 원동변강,
나골초-무북리구, 한가이구역 모제르노예촌 변농
민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8년에 함흥에서 인민
학교에 입학하여 1922년에 졸업하였다. 1923년에 북
이원구역 북정리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
업하였다. 중학교 학생 시절 특히 1926년부터 레닌공산
청년회에 입회하여 학생들 속에서 공청사업을 열성적

으로 참가하여 계속 학교 공청단체 책임비서로 선거
 받아가지고 1929 년에 공청을 나왔다. 1929 부터 1930 년
 까지 일년간 구역 임청 위원회 책임자로 워르르 일하면서
 소련 공산당에 후보 당원으로 임명하였다. 1930 년에
 선생의 나이 20 세대에 벌써 권농촌의 연인들의 신임
 을 받아 보코롭카 농촌 연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 되었다
 그 당시 원동 변경에서는 지주들을 몰살하며 소지들을 몰수하고
 배농민 권농민들을 결속하며 농촌 집단경리 정책을 전면
 적으로 써왔던바 김동수 선생은 청년간부로서 이 농촌 단합
 회 정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1932 년에는 한카이
 군당 과정에 따라 블라지보스크 당 학교에 입학하
 여 3 년 동안 수료한다음 1935 년에 풀타고 군당 지도원으로
 1년간 일한다음 원동변경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입
 학하였다. 1937 년에 원동으로 불어 함민들을 전반적으로 강려
 이쿠한라 관련하여 공산대학을 재수료하려 못하고 중앙시야
 (Tjankensu) 하슈겐구 중실직구역에 도착하여 2년간 군당
 지도원으로 일하였는데, 소련 연민의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
 인 1941 부터 1942 말까지 중실직군당 제 2 책임비서
 로 일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1939 년에 중실직구역 "십월의 20주년
 기념으로 리니콜라이 비바-젤레본노비치 딸 리다 지이아
 나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다.

1942 년 11 월에 군당 제 2 책임비서가 기계 기계의
 호출을 받아 모스크바에 출장갔다간 연직된다고 하고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김동수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편지 한 장, 전화 한번도 안 걸었다

단 한가지 대월 20일이되면 봉급만 유권자를 통하여 모스크바에서 끄끄 모순하였다. 봉급액은 낮이날 직무 봉급보다 약 50% 더 높은 금액을 보내왔었다. 그런데 부인과 부모들은 김동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생일 날이나, 기념 날이면 계속 울고만 계시었다. 소식은 없을 지언정 그래도 봉급 대신에 봉급이 보니까 어디까지 무엇인지 하곤 살다 왔다고 짐작하며 기다리려 살아가는데, 1944년 말 12월분이 봉급이 유절되었다. 좀 더 월간 그렇게도 정확하게 모던 돈이 딱 끝났다. 부인과 부모들은 기가 딱 막혔다. 누가 데려간 방향을 알았으면 그 기관에 편지를 물리라도 할 수 있었는데, 며칠 만에 기가 딱 막혔다. 소식을 모스크바에 출장가신다고 하곤 가신 양반이 소식을 안은 큰 아들이었다. 선생이 일하시던 기관에 가서 물리하셔도 그 말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정확하게 모던 돈이 안이 오는 것을 보니 사한이 죽은 것만 사실이라고 모든 것을 추측하였다. 부인과 양측 부모들은 동수가 끄끄 죽었다고 결론 짓고, 원래는 죽은 날을 모르니, 생일날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1945년 2월 27일날 집배다 가까운 친척들과 동부들을 청하여 놓고 물면서 제사를 지내었다.

집을 떠난 이후 김동수 행적.

김동수 선생은 1942년 1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하슈켄트 역권에 며칠 만에 김선생은 어떤 기관이 기차표를 끊어다 주려, 모스크바 하슈켄트 제 5호 급행차에 안착하려, 모스크바 가까운 역권에 도착하면 누가 알아줄 것이냐 근심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노기나" 광장에 있는 소련공산당 중앙본부, 제 7층에 있는 외사 부부장을 찾아 하슈켄트에서 왔다고 하면 잘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김선생은 그 때의 기관이 알려주는 말을 믿지 않았

듣고, 또 한가지 일러주던 말, 기차칸에서 누구나 할것없이,
 가감을 칠척이라도, 만나면, 자기 불일이 있어서 모스크바에
 잠깐 다녀오려 간다고 대답하러던 말도 잠 기억하고 모스
 크바에 무사히 도착하니 김선생이 한 차 량 문앞에서서
 어떤 역시 기관 대위가 경례를 붙이면서 라우겐트네너
 도시로 김동숙 선생인가 하고 불렀다. 그렇다고 하니, 선생
 의 눈에서 가방들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같이 가자노것이
 였다. 그 기관의 뒤를 따라 역의 광장에 나오니 거기에는 "월
 가" 승용차 한대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차 안에는 김동숙
 외에 또 한명의 기관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김선생을
 보고 차 외에 하서이 타쿠 반갑게 인사하곤 열길미 도시노라고
 얼마나 무근 하섰느냐고 물으며, 도시이에 라우겐트네너
 어떤가 하고 물는등 여러가지 다 뜻한 말들을 붙여하
 였다. 김선생은 물는 말에 대답하나 또대어 어느 방향으
 어떤 기관으로 가는지 알수가 없었으나, 꼭 참고 불려받고
 차가 가는 방향이란 살펴보았다. 차는 계속달리며 모스크바
 시 주변 모자이스크 대충로, 화소 동굴굴들이 쳐들어 오려고 예능
 던 방향으로, 비교적 소나무들이 광들어서, 많은고층건물들이 들어선
 특별 살림구역에 도착하였다. 김선생의 생각에는 어떤 경찰학교
 에 가는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여기는 아무런 학교 냄새가 나지
 않는 보통 살림구역같은 느낌이다. 한 두층 바네바르에 도착
 하자 차가 멈춰지니 기관 및 여러 같이 김선생은 짐하를 리
 용하여 5층에 올라가자 베르를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사람이 캅카즈 민족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기관
 을 보더니 인사를 겸사하곤 문을 열면서 어서 들어오라라고
 불렀다. 김선생은 복로에 들어서니 방을 가르치 면이 이것이
 선생의 방이라고 가르쳤다. 김선생이 자기 방에 짐을 풀고 놓는

사이에 규들은 야구경에 보이는 다른방의 문밖 열더니 저기는 책상
 4개 놓여있는 도서관 비슷한 방이었다. 또 다른 방을 드러다 보니
 그 방은 어떤 물리학 실험실 같은 기로 하였다. 김선생을 맞으려던
 규관은 말하기를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시고, 다음 이 실험실에서
 무전기에 대한 이론과 실리적으로 무전을 발신 수신 하는, 연유를
 하는 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벽도 하나에 잡아서
 2개 칠판 2방, 실험실, 화장실 하나도 없었다. 복도에 걸화적!
 때가 있었으나, 외부에 들어오는 말을 들을수 없으나, 자기 마음대로 전
 화를 걸수 없게 되었다. 규관의 방에 의하면 어디까지 보면
 지 말고, 전화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외출을 금지하지 않으나, 다만
 노교원과 일동이 나갈수 없으니 같이 계시는 동무들 세명이 조직적으로
 극장이나, 장라당와 식당에 다녀볼수 없다고 하였다.

2 일간 휴식을 끝내고 학생이 시작되었다.

학습은 12월 일 무전론 나시장은 무전 통신에 대한 이론 교시란
 2시간은 무전기로 실험하는 일이었다. 다음 점심 교시시간 휴식
 후 2시간 이론강독이었다. 아무런 강의도 없고, 교원어 (규관등이) 프로
 그랑과 보충재료를 갖고 와서 간단한 단화를 한다. 과제를 주면서
 이런 재료를 연구하라. 하고, 부분적 강의 재료를 직접 주고, 대부분은
 책장들을 가르치며 리 책장들에 있으니 리본해서라고 하였다. 교원은
 벽에 붙은 과정표를 가르치며 2 일후에 만나게 되는 데 그 시간에는
 김선생의 공부방법을 소개 듣겠다. 일반사회 경영 리학의 강
 령을 보니 대략 2년 분이었다. 그런데 권위 강령은 세이나나 형식으
 로 학습이 진행되지 하였다. 김선생이 살고 있는 방 곁에 방에는
 2명이 살고 있었던바, 한사람은 빈손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이란 사람이었다. 3명이 살고 있었으나 서로 흥화 활동은
 없었다. 다만 야구 팀은 코치야말로 대략 말할수 없어
 아더러 왔으며, 언저 왔으나 말어나 할수 없었다.

이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김선생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유사한
 었으나, 교원들은 전혀 다른 다른 사람들이었더라, 그 두사람은
 전혀 다른 교원들이 가르쳤다. 김선생은 당시 조선의 경제
 자연 지리, 정치 제도, 제 국가들간의 외교 관계, 일제의
 침략 정책이 체계화되, 특히는 만주, 중국, 소련과의 관계,
 조선어와 일어에 대한 개념 등을 연구하였다.

식사는 러시아 여인이 한분이 와서 대일 취미는 없었지만 그
 당시 전쟁의 어둠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련이였다. 소
 고기나 닭고기는 얼거리 많았지만 어디서라도 포수까지 얼
 어다가 먹이곤하였다. 식량을 살어 보는것을 보면, 1주 2차씩
 러시아군인들이 살어다 부위위 놓은 가곤하였다. 식사는 31명이
 같이 한가지로한시에 먹곤하였다. 몇달 살아가면서 그 집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니 전부가 그런 형식으로 공부하는 모양이였다.

이 외에 1개월에 몇번씩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한 강의, 군사예를, 특별한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회에 초대
 하곤 하였다. 그러나 2년동안 공부하는 사이에 2년쪽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김선생의 짐작에는 적어도 30명은, 2년쪽
 있는 사람들이 공나시아 유즈베코 공화국에서만 왔으리라고 짐작
 되나 실생활에서는 한명도 만나볼일이 없었다. 아마도 교육강령
 에 연바를 그렇게 주장하리니, 한교향사람들은 서로 만나볼수있
 게 만든것만은 사실이다. 또 사실에 있어서 한교향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라 일시에 떠나가면, 실지공작시에
 한명만 체포되면 전체가 다 파탄될 수려때문에 그렇게 조
 직한것도 사실이다. 레를 들어 하유허트 대학생 구르프가 그
 령계 실패를 당하리 안았던가, 공부는 다같이 안하였으나 대
 학생들이 기르리문에 그들이 외교적 일경한 시기에 하유허트대학
 을 발한것은 삼초 알고 있는 관계로, 자기가 조선에 나왔으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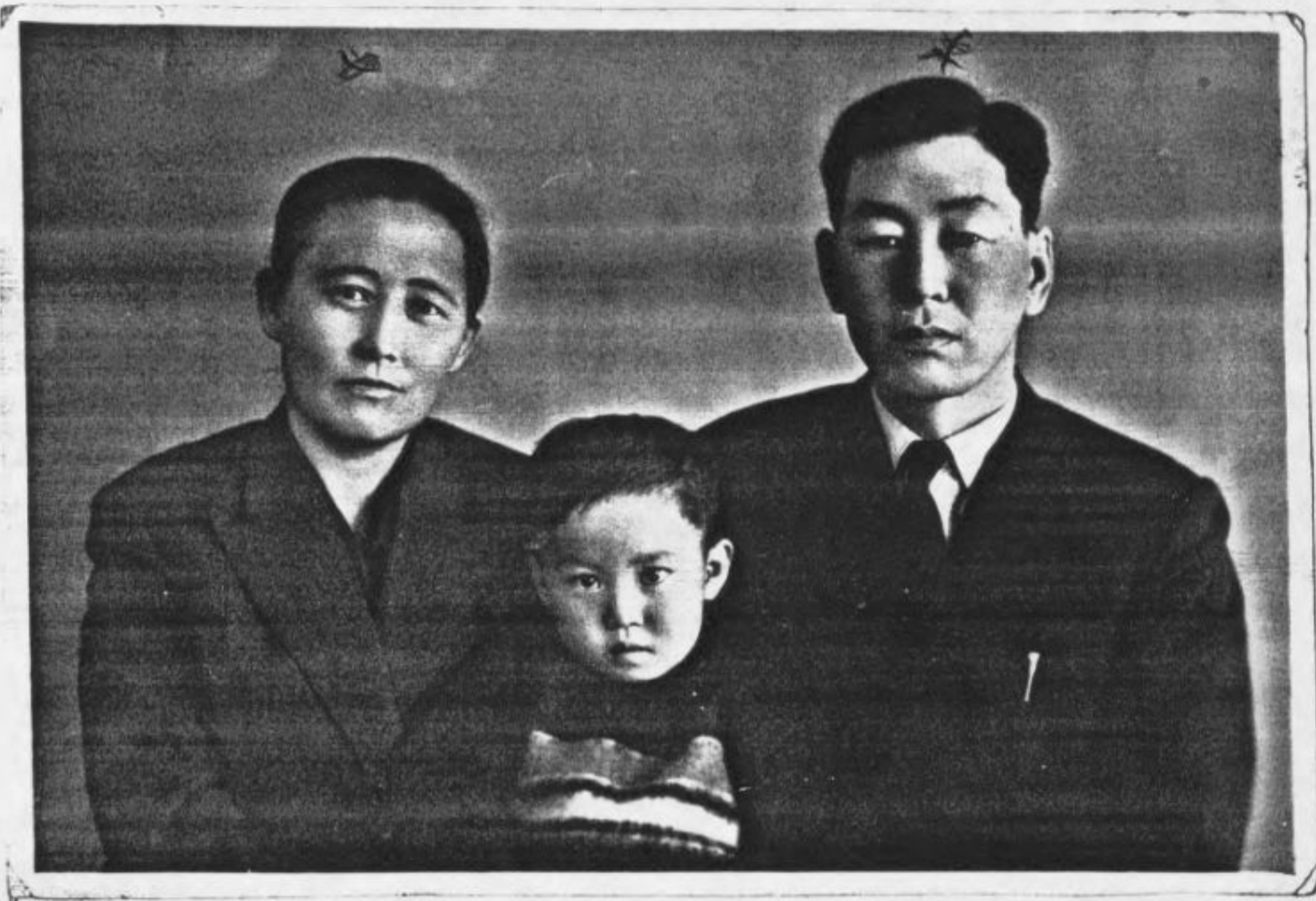
학생들은 나왔으리라고 짐작하곤 있었지만 대학생 7명 조에서 제일 먼저 동호명리 관계 시절 대학생 김예필이 체포되리라고 기대한 대학생들의 생각 외형을 대역 폭에서 7명이 몽땅 체포되었다가 8.15 2주일전에 평양감옥에서 권북의 교살당하고, 따라 맨 처음 체포된 김예필은, 다음에는 주 벨라르나야 스웨스다 끌리는 최연이었던바, 그 높은 변질공용으로 사형하지 않고, 평양감옥에 처넣고 8.15를 맞게 하였다. 평양이 해방되자 평양 평양도 분견들이 노출되는 동시에 김예필의 변질이 알려지며 그는 모스크바에 호송되며 20년 징역을 받고 시베리아 어느 농장소에서 자기의 불명예스럽고 자선로 증명 받았던 평양감옥에서 교살당한 6명 중에는 성진출방 신봉남이란 훌륭한 대학생도 있었다. 신봉남은 중앙아시아 극립공화국 대학 역사학과 2학년생이었던 김선생은 본래 성격상 아주 단정하고 정직한 분이었으나 5년 동안 가혹을 더하여 얼린 하형에 있어서 고립된 특별 분타기소에서 살아나가기 바빠지는 하였으나 그 교생이 폴란드 조국이 해방과 관련된 일어난 것을 생각하곤 학원교육을 투옥하고 코에서 피는 소다질리언 정음은 조국이 해방을 위한 정찰임무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독다짐하고 1944년 말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원종(평양)으로 귀를 곁쳐서 평양, 서울 등지에 도착하였다. 김선생은 자기 내력을 할로 식히려 하기 위하여 만주에서 조선에 나가는 형부엄라 건으로 동지들과 동행하였던바 그들은 최노광에서 막노려하는 막노동 반불공과, 반강도와 비슷하였다. 그들과 사상 문화적 공통성은 없을 달만이라도 얼어붙는 데 없었지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복종하며 할어도 편이었다. 그러나 김선생은 지식이 풍부하여 형부엄라들에게 이런사란 하나는 꼭 필요하였다. 김선생은 서울에 도착하여 건설청부위자들이 일하던 분견과

주요 건설이나 우리의 국민소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도 막아서
 형식상만이라도 리익을 응수하냈다. 이렇게 일을 조직하고서도 자기는
 경상로 태생이라 하고, 태워서 떠나 만주에 갔던 대구에 가 단떠
 오겠다고 약속 그 도시로 다니며 자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
 큰 한 편으로는 사과 장사를 하여 돈버리도 하였다. 대구에서 사과
 한봉에 1원씩 주고 20봉을 사가지고 서울에 도착하여 과일사건
 에 넘겨주어도 4원씩 받았다. 그렇게 하여 한번 대구에 갔다가
 9년 왕복 차선 하고, 다른 비용들은 다 지하고서도 35 원-
 40 원은 거둬들였다. 김선생은 서울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았
 으나, 함경로 출신들은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서 함은
 무어든 경상로 대구 출신으로 가겠다고 경상로에 다니면서 노동감
 구경도 하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1945년 8.15에 일본의 패
 패 망을 항복하였으나 김선생의 임무를 계속 맡아 있어 1950년
 6.25 전쟁시기에 북한이 남침하여 서울로 쫓김하자 김선생
 자지 임무를 맡어온 맞어막 무전으로 모스크바에 보고하고 북한
 정부의 북북하기 시작하였다. 김선생은 아직 북한에 북북하기
 전까지는 월레시 때와 같이 사선을 건너 다니면서 자기 본으로
 돈을 벌며 자기를 살구려, 경찰임무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병에 경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였다. 한번은 기사 지명
 에 이르게 되어 맞어막 임복까지 60 원을 받고 팔아 상
 계를 유지하였다. 이 모든 사정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사
 람이라곤 없었다.

김동수 선생 부인 리다지마나 나 고향에 있는 안
 념 부모들은 김선생이 돌아가셨다고. 1945년 2월 27일에
 제사를 지낸후 1개월이 지나자 다시 몸이 정기적으로 백
 20 일이면 무평국을 흥화역 여정히 이천금씩 그려 보내
 하였다. 식미를 잃고 반쯤 안은 몸으로 아이들을 데

고 기뻐없이 지내던 그때야나 많은 나월에 남호보양으로
 되살아나 웃을 수 있는 날들과 자기 남편이 사라졌다고 자랑
 하었다. 역시의 다반 만남은 날만 손꼽아 기다리었다.
 다리아나는 자기 남편이 경찰 임무를 맡고 조선에 나가있
 다는 것을 그의 약 짐작하였기때문에 일리가 포항 특함
 한 1945년 8.15 이튿날에는 자기 남편으로 만나볼 날이
 가깝아 온다고 기다렸으나, 일별이 포항항다함에도 5년
 이나 지나, 남의 남편들은 조선에 나가 사업하기 때를
 에 1946년 봄 봄을 가쪽으로 북한에 데리러가느라고
 야단 버섯하는 그의 김신생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 그의
 특혜우리 시작하였다. 북분류 된 노년에 의하면 중실씩구
 역 제2 기계-드락또르 임경호 정치부장 황 니 끌라이, 조선
 극 강 여술지도자 겸 감독 김진 씨등을 평양에서 호감자 장
 사 노릇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김동수
 선생도 평양 어느 극장에서 보다는 사람도 있으나 자서한
 이야기 하여볼 사람을 없라고 하는 등 갖가지 뜬소문들로
 많았다. 그러나 그러나 용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일중대
 사람의 생애는 보존되어 있다는것은 믿을수 없었기때문에
 항상 불포면에서도 특 많은 돈을 하였다. 살아가는 살림살이
 극에서 보니까는 돈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사는 한편 아직 그때까지의 니 끌라이 변하고 제로도 위치가
 계속 사회보장 적음도 책임자로 일하고있었고, 어머니 생전에
 누이동생, 남동생들이 꾸꾸헌의 살고 있어 아무런 남 불림
 없이 있었다. 다만 남편이 그림은 것이 불리었으나 그것은
 다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형제를 잘 보살피고
 양육고 있었다.

김동추 선생이 조선해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1944년, 일제시대 불어 남한에서 경찰운동을 하시었다



사진은 김동추 선생이 내무성 보안국장으로서
계설시 - 1957년 즈음에 찍은 것이다.

는 평정서가 흐린 계 계해 귀양분부로 불어 조선로동당 평
양분부에 도착하자, 김일성은 김동추 선생을 내무성 경보국
부국장으로 1950년 8월에 임명하였다. 전쟁의 혹독한
시기에 평양을 내어놓고 후퇴하였다가 다시 회복한다음
1951년 7월에 김동추 선생은 평양 특별시 내무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군사 침투는 소강이었다.

김동추 선생은 일제불어는 습득된 환경에서 일하던 것이
광명노력은 양지에 두드러지게 나서서 일하고 있었으나, 노련에서
살고 있는 부인 다지야나 양과 두 아들을 평양에 데리올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시기: 첫째로 경제난으로, 둘째로는 유엔
폭격기들이 매일 평양을 폭격하는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라, 마저
막으로 평양에 나와서는 살수있는 건물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11.
이 전쟁시기에도 평양 수뇌부 전체 간부들의 가족들은 전북 다중국
에 투회하여 북안강, 변길, 함빈 동정 등 여러 도시들에서 살고
있었으나 이 피난민들의 가족들을 양조하기 위하여 중공정부를
불러 특별 지시에 따라 각 군에 대동부라는 것을 조직하고
매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이것은
정전이 초연된 1953년 8월까지처럼 하였다.

김동수 선생은 비철리에서 태생된 후 1952년에 가정방출자로
우즈베크 공화국에 출장 갔다 왔으며, 1953년 말에는 자기 가족
을 평양에 데려갔다. 사모님 따지이나 양은 남편을 따라
북한에 가기는 하였으나 아직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물질적
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전쟁시기 건물조건으로 말
미다나 평양 내무부는 평양에서 30리나 떨어진 순안에 나와
자취 잡고 있었다. 때문에 내무부장의 가족도 순안 주변 농촌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은 급속히 복구되어 중앙 권력 기구들은 전
북다 1953년 말, 1954년 초에는 평양에 거주하게 되었다.

김동수 선생은 1957년 초에 평북시 내무부장 직위에서 내무부
보안국장으로 명전 되었다. 이 당시 내무상으로는 소련 출신 간부
였으나, 그는 유명한 소련 계 계보에 간부 받았던 것이다. 받았던
는 소련군 25군단 정치안전부 부장 보자긴 노장과 함께 일한
면서 북한에 입국하였으나, 북한으로 불려 소련군 철거 시기인
1948년 말에 김일성의 쓰담리에서의 특별 교섭에 따라 북
한에 나와 있게 되었다. 그는 그 후 계속 중의한 조직들에서 사임
하였다. 처음엔 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장, 정치보안국장
1955년으로 불려 내무상이 되었다. 조선 노동당의 간부 숙청, 간부
처단 지반으로 유행 과정 등 가장 비극적인 일들은 전북다 방북사
의 논을 걸쳐서 집행되었다. 이렇게 심임을 받은 김일성의
모든 팔 역할은 하나에서 살아야 역할을 하던 방북사도

1959년에 노련간부들에 대한 문제를 종말점을 시키기 (12.)
그를 설득하여 부임 초상으로 만들어 함흥에 내려보내 종말점을
재고양하게 하였다. 그는 거기가서 병들어 죽고 말았다.
방학세가 내무상 직책에서 떠나자 그 직책에는 방학제사 출신
비교적 진보적인 간부 석산이 임명되었다.

내무상으로 석산이 들어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임
명된 내무상은 김동우 선생을 부상으로 추대하려고 무한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김선생은 그 레이에 매번 거절
하였다. 그것은 내무부에 방학세가 상으로 제 실시 제일
주요 보직에 노련 출신 간부들이 강상호, 주광부, 김발택 씨의
김동우 등 전부 5명이 일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다 형
산 되고 김선생 한분만 남았으며 명전은 웃음거리였다
둘째로 김일성의 과거 자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관들은 다 형
산 하는 판에 자기가 재래지 금불이라 하여도 김동우 선생은
사실이 옳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리용하여 노련에 귀환 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 들어 있었다.

김동우 선생은 노련에 귀환 간부 중 식량급호를 받지 않는 한
불라 10명 미만 중 한명으로 관세를 모면하고 귀환하였다
김동우 선생은 1944년에도 불어 조선 땅에 발붙이고 약전과
함에서 살아왔지만 북한 공민 목적을 가진 것은 1950년 서
북한군 입성 이후 노련 계 계 배 분부 전적 공적 공물에 의하여 후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김동우 선생은 공식적으로 내무상 석산에
제 제기하기를: 자기는 원래 농업 생활 년령도 되고, 몸에 마
도 있고, 늙은 부부들과 모래동안 갈라져 살게 된 관계로 연
금 생활은 귀향하여 부모들을 살리보며 살겠단고 하였다
김동우 선생은 동족상잔 이후 북한에 노련 공민으로서 출장
하여 약 10년간 생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내무

상업 제리에 그 지역에서 소련 귀환을 비준하였다.
 리 다리아나 니콜라예브나 김 동우 선생께 시집을 가서 아홉
 글목이 넘는 생활을 하였으니, 독을 많이 마시고 살았으나 마
 지막 노년기에는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훈
 적인 이야기로 하였다. 평양에 두 아들을 데리고 평북시 내륙
 부장을 하고 있는 김 동우 노장을 따라 나가서 권속 벱벱한
 경제 형편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로써 자기 남편, 일생의
 배필, 하늘보다 더 높은 고이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평양에서 1956년에 3남을 보게 되며 그를 알렉산드르
 라고 이름 짓고 야든에 반숙제 모양으로 굶이아-달이이르
 리에서 자리냈다. 1957년에는 자기 부친 40주년에 제
 하여 다리아나 양모 작은 아들만 데리고 유르베코한, 하유겐
 트루 세베르나 타락 골노즈에 찾다가 갔다. 이것은 아휘리의
 전갈에 불하로 할 것, 자리가 조선에 나가서 남편하고 행복
 하게 살다는 것을 미우에게 보이기 위하여서도였다. 김선
 생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단정할 맘씨여서 복안이 행복하
 게 살것은 사실이다.

김선생은 소련에 귀환한 후 열금을 축적하고 하유겐은시에
 사택로 배정받고 아이들의 공부비용도 위하여 제복 공복한게 하였다
 약 일년간 집에 앉아 휴식하고 부연리 한개 소련의 유명한
 코릴반드 휴양소에 가서 약 일개월 휴식한다음 돌아
 오는 도중 모스크바에 들러 여러 친구들을 만나 이편에 복한
 에서 사임하던 이야기, 사임함으로써 걸러 고생하던 이야기
 등 이야기를 권 받으면서 한숨에 눈물로 정고, 웃어보지
 하였다. 이야기 중에서 가장 화제거리로 된것은 불쌍하게 안
 당한 러가이 이야기, 다음 박창동, 박의환, 최공학 최홍국 등 동

들에게 대하여, 그 외에도 박헌영, 이봉영, 김주봉 선생과 조만석 선
 들에 대하여 끈연하여 계속되었다. 약 2주일간 모스크바에서
 이집 거집 돌아다니면서 휴식하다가 하유켄네에 돌아왔다.
 평은 조국에 청춘 시절을 다보아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쳤지만 인간이란 그 본성을 항유할수없는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 하항 북한리 땅 외국에 와 살게 된 신세를 내일 갖어
 희생하면서 신물과 책을 보는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 그 이후
 하유켄네에 도착한지 일년만에 1962년 말부터는 일 자리를
 배하여 좀 쉬운 일에 취직하려고 시내북부에 찾아갔다.
 시내북부장인 김동복 선생의 요구에 따라 하유켄네시 레닌구역
 경비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선생은 이 직무를 아주 귀담하였다. 이
 후에 이 직무에서 무려 16년간 일하시어 1978년 봄에 잡에서 후
 사임하여, 말년에 한 번씩 동북인민애 쓰련 지역 데리 취미노들
 에 갈다시러 휴향하시었다.

김동복 선생은 1993년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기의 생
 내를 리따고지어나를 일하게 되었다. 따지고나서 사모님이
 세상 떠난후 김선생은 원래 정정하게 권역아를 알리
 산드라와 같이 사모님이, 자기부부간어 살고 있던 집은 본
 에게 양도하였다. 김선생의 원래 연세가 85세였어
 불고하고, 비교적 건전한 몸체와 정신상태를 보였어
 노라들을 안주하여, 신분장리 들로 배서 놓지 않은 데 일하고
 사모너, 조국흥달에 대한 념원은 잊지 않고 있다.

1995년 12월 10일, 하유켄네에서 강북님,